

칼빈주의 바로 알기 4

루터와 칼빈의 흑역사: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살전5:21-22

우리는 지금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지난 3시간, 첫째 시간: 왜 강해를 하는가? 칼빈주의의 문제, 구원 문제 성경과 다르게 가르친다.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믿는다.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노만 가이슬러, 5대강령,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왜 성경과 다른가?

기독교 강요 21장 5항,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507쪽), 하나님의 작정 시나리오

(*)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의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그를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칼빈주의는 한 마디로 사람에게서 자유 의지를 제거하는 시스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오늘은 < > 먼저 종교 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 한다.

칼빈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은 종교 개혁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다.

우리는 개혁자들의 5가지 솔라를 믿으며 그들을 존중한다. 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약 1200년 동안의 중세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성경과 교리가 완전히 가려져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보지도 못했다. 카톨릭 교회의 일곱 성사 행위 구원
이러던 시대에 루터, 칼빈, 쾰링거 등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5가지 솔라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신칭의, 5가지 솔라 때문에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왜? 성경과 비교할 때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교리적 오류가 있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교회론이 완전히 망가졌다. 유아 세례, 주의 만찬, 교회의 두 직분, 재림 등
말 그대로 이신칭의 빼고는 거의 모든 교리가 그들의 가르침 안에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다.

심지어 칼빈의 경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의 믿음도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을 시킨 이후에 성도가
무조건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니 더더욱 성경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미들타운바이블처치 젤러(*)

Reformed theology, 5번째 기사, (*) Should We Go Back to the Reformation?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답은 '아니요!'이다. 절대로 '아니요!'이다.

이 기사에는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의 흑역사가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흑역사: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

오늘은 기사를 그대로 번역해서 소개하면서 코멘트를 할 것이다.

젤러의 글

개혁신학자들은 종종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 예를 들어 R.C. 스프로울이 편집한 <종교개혁 스터디 성경>(The Reformation Study Bible, 1998)을 보자. (*) 이전에는 새 제네바 스터디 성경(1995년 토마스 벨슨), 한글 판(개혁주의 스터디 성경)

나중에 1시간 종교개혁 스터디 성경에 대해서도 젤러의 글을 통해 이야기할 것이다.

middletownbiblechurch.org/reformed/geneva.htm

종교개혁(개혁주의) 스터디 성경 도입부

“종교개혁 스터디 성경의 주석과 신학 노트에는 종교 개혁의 진리를 현대적으로 다시 진술한 부분들이 있다. 이것의 목표는 종교개혁의 빛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 교리들과 신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들이 말하는 빛은 종교개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것이다. 시119:130 개혁자들은 여러 면에서 조명을 받았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빛은 성경에서 온 것이다.

여러 면에서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 종교 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 중 아무도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자유가 없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개혁자들의 글과 교훈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시험해야 한다. 즉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말이라고 해서 그냥 믿으면 안 된다. 더욱이 450년 전의 사람들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행17:11-12

바울의 말 (고전11:1).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우리는 개혁자들이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랐으므로 좋은 점들에서는 그들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점들에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 왜? 그런 부분들에서 개혁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우리는 오늘 루터와 칼빈이라는 두 종교 개혁자의 삶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두 사람은 장점도 많지만 약점도 많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장점이 아니라 약점 즉 이들의 흑역사를 살펴보려고 한다. 목적: 무조건 종교 개혁자들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루터의 반 유대인 주의

1517년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여 종교 개혁을 이끌었다.

역사상 매우 위대한 사람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은 기독교의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고해성사를 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루터를 사용하신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루터는 유대인들을 극도로 미워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에 따라 예수님을 믿지 않자 그는 모든 유대인을 적대시하고 심한 독설을 퍼부었다.

필립 샤프(Philip Schaff 1819-1893, (*)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총 8권 Volume 7 "Modern Christianity--The German Reformation," pages 61-62: 독일의 종교개혁 61-62쪽

“루터는 유대인들에 대한 불관용을 공개적인 의견으로 진전시킨 사람이다. 처음에 그는 1523년에 유대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에 항거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1543년에는 유대인들을 극도로 대적하는 두 개의 폭력적인 책들을 지었다. 그는 유대인 랍비들과 토론을 한 뒤 이들과 논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들을 개종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는 그들을 기독교 국가(독일)의 영토에서 추방하고 그들의 책들(토라와 탈무드 등)을 금서로 정하고 회당을 불태우고 우리의 구원자를 모독하는 자들의 집을 불태우라고 조언하였다. 유대인들은 공공의 원수이므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루터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칭의는 이해하였지만 하나님이 베푸실 밝은 미래가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9-11장을 이해하지 못함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요4:22).

예수님, 제자들 모두 유대인, 구약성경 신약성경 기록자 유대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이방인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 등에 대해 무지함
당시의 유대인, 나라도 없고 떠돌아다님, 이스라엘 대체 신학, 유대인들 핍박
시작은 천주교, Jesus Killer, 반셈족주의(Anti Semitism)

유대인들에 대해 이런 악행을 저지른 루터를 5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랍비 조셉 텔루슈킨의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 "Martin Luther and the Protestant Reformation" found in the book [Jewish Literacy--The Most Important Things to Know About the Jewish Religion], by Rabbi Joseph Telushkin, 1991년, 784쪽, 204-206

<유대인들에 대한 교양 지식: 유대인들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 한 장: 마르틴 루터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 책에서 랍비 조셉 텔루슈킨은 루터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무자비한 일을 자세히 보여 준다.

그는 루터를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에 비교한다. 처음에 그는 그들에게 호의적이었으나 유대인들이 개종을 거부하자 그들을 탄압함.

랍비 텔루슈킨의 말

1. 루터는 히틀러 시대 이전까지 독일에서 발간된 반 유대인주의 책들 중 가장 유대인들을 크게 대적하는 책을 지었다. (*) 1543년에 루터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On the Jews and their Lies

2. 기독교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 중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던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유일한 한 하나님만을 인정한다면 나는 그들의 목에서 그들의 혀를 잘라내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 루터는 예수님은 사랑했는데 유대인들은 증오했다. 이상한 일

3. 수년간 유럽을 피로 몰들였던 제2차 세계 대전이 1945년에 독일군의 패배와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 드디어 1946년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 전범들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소에 피고인으로 불러 나왔을 때 독일 나치 장교로 선전 선동을 주동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율리우스 슈트라이허 (Julius Streicher)에게 재판관이 질문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러자 슈트라이허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겐 죄가 없다. 나는 오직 마르틴 루터가 시켜서 그 일을 하였을 뿐이다. 만약 내게 죄가 있다면 마르틴 루터를 이 자리에 불러 앉혀서 먼저 재판하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은 루터가 그들에게 행한 일보다 나쁘지 않았다.”

4. 히틀러는 자랑스럽게 루터가 자기와 한 편이라고 말하였다. “루터는 지금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보았다.” 즉 그들을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5. 루터가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한 가장 큰 이유
자기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루터는 종교의 자유(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자기가 믿는 대로 믿지 않으면 무력으로 제압하고 심지어 죽여도 된다는 생각

이것이 12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를 지배한 종교 정신, 루터나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자유가 박탈된다.

요한 칼빈의 무자비한 학살

젤리의 글: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대하며 종교 개혁 실행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카톨릭 믿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극도로 핍박하였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종교 재판(Inquisition)을 연구해 본 사람은 누구라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이다.

위키백과 스페인 종교재판: 스페인 종교재판은 1478년부터 1834년까지 스페인 왕국에서 있었던 종교재

판이다. 스페인 종교재판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적게 잡아도 30만 명 이상으로 이 기록에 따르면 31,912 명이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받았다. 한편, 희생자의 수를 가장 크게 잡은 기록은 사형이나 고문 등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2백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유대인, 개신교인,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유대인: 억압을 피해 스페인을 떠난 유대인의 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역사가 후안 데 마리아나는 80만 명가량으로 추산하였다.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은 대개 포르투갈이나 모로코로 옮겨갔고 후에 유럽, 북아프리카, 오스만 제국 각지의 도시로 흩어졌다.

아이러니: 그런데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거기서 나온 칼빈과 여러 개혁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나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화형 등으로 처형하였다.

필립 샤프(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8, "Protestant Intolerance," pages 700-800). 프로테스탄트들의 불관용

“개혁자들은 자기들의 어머니 교회(모교회) 즉 카톨릭 교회로부터 박해와 탄압이라는 불관용 교리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자들을] 최대한 핍박하였다. 그들의 박해와 불관용은 카톨릭 교회와 비교해서 규모와 정도는 달랐지만 원리 면에서는 동일하였다. 이들은 교황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종교의 자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자기들 스스로 향유하던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애나뱃티스트(재세레파, 재침레파) 등과 같이 자기들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지역에서 추방하고 옥에 넣고 익사시키고 참수하고 목매어 죽이고 불태워 죽였다.”

현시대에는 칼빈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종교개혁의 산물인 칼빈주의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보여 주기 위해 츠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바오출판사 2009)에서 발췌할 것이다.

(*) <폭력에 대항한 양심-칼빈에 맞선 카스텔리오>이다.

이 책은 칼빈과 동시대에 제네바에 살면서, 신정국가를 건설한 칼빈의 독재와 폭력에 맞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며 관용을 부르짖은 인문주의자 카스텔리오의 감동적인 싸움을 20세기 최고의 전기 작가 중 한 사람인 츠바이크(나치의 탄압을 피해 망명지를 떠돌았던 위대한 전기 작가)가 기술한 것이다. 아무도 이 책이 보여 주는 역사적 사실에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눈으로 본 사람, 몸으로 체험한 사람의 글

<기독교강요>에서 말하는 교회 목사,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가?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45쪽 “교회의 설교자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행할 권한이 있고 이 세계의 위인이나 모든 권력자를 강요하여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 숙여 자기에게 봉사하도록 만들 권한을 가진다. 그들은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법령을 세울 수 있고, 사탄의 왕국을 쳐부술 권한을 가진다. 그들은 양들을 보살피고 늑대를 절멸시켜야 하며, 복종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반항하는 자들을 고소하고 절멸시킬 권한을 가진다. 그들은 결합할 수도 해제할 수도 있으며 번개와 천둥을 내리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칼빈은 뒤에 조건을 달았지만 그것은 명목상 단 것이고 실제로는 앞에 있는 대로 행하였다.

목사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는가?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되겠는가?

이런 것이 칼빈주의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칼빈은 두 번에 걸쳐서 제네바 통치, 1536-1538년 1차 통치, 실패하고 쫓겨남, 3년 뒤 다시 제네바로 감

칼빈의 2차 제네바 통치(1541-1564) 약 23년, 그는 제네바에 머물며 개신교의 교황으로서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시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제네바에서의 처음 실패를 경험한 뒤 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장로 통치 제도를 도입하고 엄격한 생활방식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였다.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칼빈은 국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용한 종교 재판을 이용하였다. (두산 백과) 종교 재판은 이단 심문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이단자의 탐색, 적발, 체포, 재판, 처벌을 포함하는 이단자 박멸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그 임무로 하였다. 이단자에 대한 탄압은 4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창시자는 어거스틴)... 이단 탄압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했기 때문에 종교 재판은 각국의 국왕, 영주,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속적인 재판으로도 행해졌다. 그 후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자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도 종교 재판이 성행되었는데 그 재판 방법은 카톨릭 측의 방법과 같았다.

칼빈은 신약 교회가 경험한 적이 없는 '교회 계율'을 도입하고 종교국을 만들어 제네바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 이런 감독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제네바에서는 사생활의 자유가 사라졌다. 도덕 경찰관들은 어느 집이나 들어가 모든 것을 샅샅이 검사하였다. 하나님의 계율을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테러 속에서 제네바 시민들은 삶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 - 연극, 오락, 민속 축제, 춤, 온간 형태의 유희, 심지어 스케이트 타는 것도 - 을 다 박탈당하였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살다가 죽는 것, 일하고 복종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것뿐이었다. 제네바에서는 오로지 "금지, 금지, 금지!" 그리고 "의무, 의무, 의무!"의 외침만 들렸다.

칼빈은 10,000여 명에 불과한 제네바시를 통치하며 처음 5년 동안에 13명을 교수대에 매달고 10명의 목을 자랐으며 35명을 화형시키고 76명을 추방하였다. 칼빈의 이러한 종교개혁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빙자한 살상 행위였다. 이 같은 잔인한 피의 숙청은 칼빈의 잔인성과 폭력성이 어떠한지 여실히 증명해 주며 국가 교회 통치를 위한 칼빈주의 교리가 예수님의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어거스틴의 카톨릭 주의를 그대로 답습한 멸망의 교리였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칼빈은 종교적 반대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선적 지배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반대당의 사람들까지도 거침없이 제거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인문학자 카스텔리오는 "제네바에서는 칼빈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했던 사람은 다 처형당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제네바에는 칼빈당 외에는 어떠한 당파도 남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칼빈의 주장(53쪽): "나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는다. 이 사실이 나의 양심에 힘이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은총을 내리셨다."(53쪽)

카스텔리오: 칼빈으로 인해 제네바에서 자유는 끝났다(46쪽)

칼빈이 처형시킨 사람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칼빈의 예정론 교리를 비난하고 반대한 사람들
2. 칼빈을 위선자라고 부른 사람들
3. 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
4. 부모를 구타한 사람, 5. 칼빈과 생각이 같지 않은 자유사상가
6.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
7. 이 외에도 그는 삼위일체, 유아세례, 성만찬 등의 해석에서 자기와 의견을 달리한 사람들을 처형하였다.

칼빈과 그의 종교국의 고문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 엄지손가락을 조이고 발바닥을 불로 지지고 밧줄로 잡아당기는 것
2. 창자가 튀어 나오도록 꼬챙이로 쑤시는 것
3.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것, 4. 사람의 가죽을 벗긴 뒤 소금으로 문지르는 것
5. 칼로 살갓을 찢는 것, 6. 불에 그슬리는 것, 7. 사람의 몸을 절단 내는 것
8.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 9. 해충들이 살을 뜯어 먹도록 방치하는 것

같은 책,,이 모든 고문 방법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도들과 유대인들을 잡아 처형할 때 사용하던 방법들이다. 이런 극심한 일들이 진행되자 고문받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러자 종교국은 자살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박수를 치게 했다.

사실 그때까지 제네바 시는 칼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한 이런 폭정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다.

프랑스의 작가 발자크(Honore de Balzac)는 칼빈의 프로테스탄트 종교 테러가 프랑스 혁명의 피의 축제보다 더 잔혹했다고 지적하였다.

이 모든 행위와 역사를 바로 규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의 만행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들의 교리가 성경적인 정통으로 숭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주의는 실로 인본주의 철학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대개 지성주의자들이 거기에 매료된다. 그러다 보니 현시대 칼빈주의자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른다. 그들은 칼빈주의가 ‘확고하게 성경에 기반을 교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사도들이 지킨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며, “그리스도께서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가르치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W. J. Seaton,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1970, p.8, J. B. Davis, The Berea Baptist Banner, 1995, p.30, M. Duncan, The Five Points of Christian Reconstruction from The Lips of Our Lord, 1990, p.10.

칼빈에게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자기가 믿는 자기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가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반대하시며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사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신약 시대라는 새 시대를 여셨다. 예수님의 신약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무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며 무력으로 불신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주후 100년 이후로 교회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며 세상을 제압하기 위해 이루어진 만행은 다 국가 교회를 시행하는 카톨릭 교회와 거기서 파생된 개신교회(특히 칼빈의 개혁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청교도 신앙/개혁주의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 칼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려는 사람들이 칼빈이라는 무서운 독재자의 사상을 성경 위에 두고 그대로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천주교회의 통치보다 더 무섭고 엄격했던 칼빈의 제네바 철권통치의 실상이 성도들이 정확히 자세히 알아야만 한다. 다시는 그런 만행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독재는 실로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짓임을 역사는 잘 보여 준다.

결론

젤러: 개혁자들이 받은 빛은 다 성경에서 나왔다. 우리는 이신칭의, 성경의 충분성, 5 솔라 등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기뻐한다. 이것들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매우 기초적인 것들이다. 이 외에도 교회에 대한 중대한 교리가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앞에서 보여 준 대로 칼빈은 제네바에 국가 교회 즉 신정정치 체제를 수립하려 하였다. 교회에 대한 교리, 재림에 대한 교리,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교리는 이보다 훨씬 뒤에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발견되었다. 개혁자들은 국가 교회, 신정 정치,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특히 유대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큰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교회론, 구원론 등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들은 성경이 주는 빛으로 중세 암흑시대의 매우 미소한 부분에만 빛을 비추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즉 물이 나오는 원천이 샘으로 돌아가야지 샘에서 나온 조그만 물줄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교리와 실행의 원천인 샘이다.

우리는 개혁자들, 교회사의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만 항상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비교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왜 기독교인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한 마디로 이들의 시조는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의 국가 교회가 시작되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세 암흑시대로 나가는 과정을 교회사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